다산포럼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 위한 두 가지 전제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얼마 전 대통령의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도민은 “국회의원들이 매번 막대한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방 국립대에 몸담고 있으면 이 말의 의미를 절감하게 된다.

대학 본부는 라이즈(RISE), 글로컬 대학, 국립대육성사업 등 각종 재정 사업으로 교비를 확보했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그 성과는 체감되지 않고 재정 사업의 지표만 통제와 압박으로 다가온다. 필자가 속한 대학만 해도 국립대육성사업 지표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학부 대학을 추진하고 기존 학과 정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첫째, ‘대학 자율성의 부재’가 있다.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는 교육부 소속 기관으로 인사·교육·연구 등 대학 운영의 핵심 사항이 모두 교육부의 시시콜콜한 통제를 받는다. 재정지원사업마다 칸막이로 나뉜 예산은 ‘생선 토막’처럼 들어와 학과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불가능하게 한다. 심지어 예산이 10월에야 배정되어 회계연도가 끝나는 2월까지 소진하라는 독촉을 받기 일쑤이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의 장기적 혁신은 불가능하다. 과거 서울대 재학 시절에는 법인화에 반대했지만 국립대에 임용된 후에는 자율성 없이는 혁신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지나친 관료제적 통제로 교수들은 실제 교육과 연구보다 무의미한 행정에 지나치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교수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행정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대학 민주주의의 취약함’의 문제가 있다. 외부의 통제 못지않게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부재도 심각하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사실상 총장의 독임제를 보장하고 있어 총장의 성향에 따라 대학 운영의 민주성 수준이 좌우된다. 대학의 독주를 막기 위한 평의원회의 다양한 토론에 기반한 심의는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고, 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원이나 학생 평의원은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재정 사업은 특정 세력의 자원 독점으로 이어지거나 지역의 문제에 대한 천착한 고민과 연구,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책무성 없이 나눠먹기 식으로 집행되기 쉽다. 작고한 윤일성 교수는 지역 문제의 원인을 토건주의적 성장연합의 자원독점과 이를 막는 건전한 비판 세력의 취약함이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대학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망국적 교육 경쟁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근본적 목표에 도달하려면 과거의 실패한 재정 사업처럼 나눠먹기식 예산, 성과 없는 진부한 산업 진흥책, 기술주의적 접근을 답습하는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는 과감함과 파격성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의 자원 독점을 배제하고 고등교육 실태와 지역 격차에 대한 사회경제적 데이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철학,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 로컬 혁신가, 당사자들의 숙의에 기반한 과감한 혁신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대학 자율성 부재’와 ‘대학 내 민주주의 취약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대 규제 개선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대학 구성원들이 칸막이식 예산과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공간에서 교육·연구 혁신에 몰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학은 한국 사회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추억의 동화’ 함께 쓴 광주 충장축제

임택
광주 동구청장

평소라면 승용차와 버스 등이 쉴새없이 오고 가는 도심 한복판에서 ‘춤판, 놀판, 노래판’이 닷새간 펼쳐졌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충장로와 금남로,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와 ‘제4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을 통해서다. 동구의 상징이자 광주의 자랑인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추억과 낭만으로 물드는 특별한 시간여행에 구름 인파가 몰렸다.

축제 첫 날은 버블 무대에서 개막쇼, 둘째 날은 일본·중국·몽골 등 아시아 각국의 음식과 의상, 전통 놀이의 장이 펼쳐졌다. 불타는 금요일인 셋째 날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현직 DJ들과 함께 반짝이 가면을 쓴 시민들이 춤을 추며 가을밤을 오색찬란하게 물들였다.

무엇보다 올해 충장축제는 지난 21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추억’을 테마로 하되, 매년 시리즈로 연례화시킬 예정이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추억의 동화’였다. 팥죽할멈과 호랑이, 피터팬, 신데렐라,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기성세대와 MZ세대, 나아가 미래세대의 새로운 감성까지 공유하며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었다.

광주 시민들에게 오월 정신이 깃든 ‘주먹밥’은 다른 먹거리보다 더욱 특별한데, 넷째 날 열린 주먹밥 콘테스트인 ‘손으로 맛나는 추억’은 꽤 의미가 남달랐다. 단순히 주먹밥을 만드는 행사를 넘어 자신만의 주먹밥 레시피를 알리고 충장축제만의 특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됐다.

매년 다채로운 콘셉트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퍼레이드 역시 올해는 축제 시작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기존 축제 기간에 하루만 하던 퍼레이드가 이틀로 확대됐고, 필자 역시 한 번도 가서 본 적 없는 롯데월드의 퍼레이드팀이 초청돼 펼친 기획 퍼레이드는 압도적이었다. 발 디딜 틈 없이 찾아오는 주말 방문객들에게 놀라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퍼레이드 행렬에 놀랐기 때문이다.

이날 만큼은 서울과 부산을 찾지 않아도 구도심 한복판에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환상적인 ‘빛의 행진’이 금남로 4가부터 1가까지 장관을 이뤘다.

또한 전국 퍼레이드 경연팀이 선보이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관내 13개 행정동 주민들이 협력해서 이룬 국내외 동화 모뉴먼트는 수준급 디테일로, 프로 못지 않은 실력을 자랑할만 했다.

축제도 축제지만 축제장 주변 곳곳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공간들도 한몫했다. 7080 추억의 테마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하늘마당, 5·18 민주광장 내 음악분수와 빛의 분수, 빛의 읍성을 비롯해 금남지하상가에 정식 개관한 ‘빛나는 아이나라’,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극장, 동명동 카페거리 등등. 유모차, 킥보드, 자전거를 타고 활보하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알콩달콩 연인들, 연세 지긋한 나이에도 옛 추억을 회상하며 오시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22년 역사의 탑을 쌓아 충장축제를 완성해 나갈 수 있었다. 축제 기간 동안 교통 통제 등으로 불편을 겪었지만 안전을 위해 ‘양보’를 택한 모든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가을밤을 수놓은 충장축제는 성황리에 폐막했지만 닷새 간 채운 추억의 여운은 분명 오래갈 것이다. 축제장을 걷다가 흘린 땀방울은 선선한 바람에 금세 메말랐고, 5·18 민주광장과 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제4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에 참가한 전 세계 각국의 뮤지션들의 공연은 “눈도 호강, 귀도 호강, 이게 바로 힐링이지”라는 말을 절로 나오게 했다.

추억은 때론 삶이 힘들 때 그 힘을 빌려 벗어나게 하고, 좋았던 시절은 더 화사하게 윤색시키고, 부끄러웠던 시절도 그리워하게 만드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그렇기에 올해 충장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NGO 칼럼

군함도는 멀리 있지 않다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몇 년 전 일이다.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문화해설사로 일하고 계신 한 선생님이 물어물어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다. 양림동 펭귄마을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모델인 이옥선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한 탐방객으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4살 때 중국 옌지(延吉)로 끌려가 3년간 모진 고역을 겪어야 했고 중국에 머물다 58년 만인 2000년에야 귀국해 국적을 회복했다. 이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때로는 수요시위 현장에 때로는 각국을 순회하며 증언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세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애써 왔다. 할머니는 지난 5월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광주 남구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2017년 소녀상 건립 당시 이러한 이 할머니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산 출신임에도 소녀상의 모델로 선정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고초를 겪으신 할머니 대신 부산 출신 할머니를 광주 남구 소녀상의 모델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광주 6곳, 전남 16곳 등 22곳에 이른다. 소녀상 설치 숫자로 보면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지만 아쉽게도 지역성을 반영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사례는 드물다. 단적으로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보려는 지역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소녀상’이라는 외형만 남고, 매년 갖는 ‘기림의날’ 행사는 실재하는 지역적 사례와 유리된 채 숙연함만이 요구되는 ‘의례’적 행사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광주시의 경우도 몇 년째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역마다 소녀상 제작에 최소 3~4천만원의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소녀상 건립에 들인 일부의 관심을 관련 연구사업에 돌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광주·전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고 지역 사례가 결합 될 때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올해 광주시 사례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선 광주시는 올해 ‘기림의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역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일찍이 손잡고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에서는 광주여성재단이 지난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광주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현황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데 초점을 뒀다. 광주에 거주지를 두거나 광주를 중간 매개로 동원됐던 13명의 피해자들을 처음으로 지역에 소개함으로써 외형적 행사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내는데 힘을 기울였다.

행사에서는 이렇게 발굴된 13명의 피해자 이름이 한 명 한 명 호명됐는데 굳이 의례적인 추모사가 없어도 모두가 숙연해지는 자리였다. 그동안 잊혀졌던 13명의 피해자들이 광복 80년 만에 역사적 실체로서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다.

그 중 곽금녀, 진화순, 이○○ 또는 최복애 피해자는 모두 광주 제사·방직공장에서 일하다가 집단 동원되었고, 최양순 피해자도 솜 타는 공장에 다니다가 동원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광주지역이 인근 농촌에서 동원된 여성들이 모이는 중간 집결지로 활용되거나 공장 등이 직접 동원의 매개가 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위안부 동원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군함도’는 멀리 일본 나가사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 부정을 일삼고 있는 일본 탓만 할 것도 아니다.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 가까이 있어도 무용한 것이 되고 남의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일제 식민지 산업수탈 현장인 이곳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또 다른 시험대다.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 못지 않게 80여 년 전 이곳에서 10대 소녀들이 겪어야 했던 수난과 치욕을 담지 못한다면 한갓 콘크리트 더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군함도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국가폭력 ‘여순사건’ 진상조사 속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SNS를 통해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구례에서 열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해 여순사건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낱낱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도 기한 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들어 여순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최근 법원이 여순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해원(원통한 마음을 푸는 것)을 바라는 유족들 입장에선 반길 일이다.

다만 진상조사에 대한 속도가 더딘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를 꾸려 진상조사를 위한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진상조사 처리율은 34.7%에 머물고 있다. 전남도 중심의 실무위원회와 정부 주관의 중앙위원회로 이원화 돼 있는데다 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실무위가 조사를 마친 2671건을 바로 중앙위에 올려 모두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율은 59%에 불과한데 한 달에 100~150건 심의하는 중앙위 일 처리 속도를 감안하면 불가능해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한 내 심사 완료를 약속했다. 약속를 지키려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심사 속도를 올려야 한다. 보수·뉴라이트 인사들의 참여로 지난 4월 해체된 2기 진상보고서기획단을 빠른 시일 내 출범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통령의 말처럼 시간이 걸려도 역사를 바로잡아야겠지만 최대한 기한 내 진상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다.

신군부 비자금 재조사해 환수조치 하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상고심에서 노태우가 SK에 제공한 300억원을 뇌물로 규정하면서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 분할에서 참작해선 안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300억원을 비자금으로 판단했는데 대법원과 차이는 재산분할에 비자금을 포함하느냐 여부만 달랐다. 중요한 것은 두 법원 모두 SK에 건넨 노태우 자금 300억원을 비자금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5월 단체들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에 환수하라는 주장이 명분 있고 힘이 실리는 이유다.

사실 노태우 비자금 수사는 현재 진행중이다. 지난해 5·18재단 등이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바란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고 금융실명제 이전 자료도 들여다 봐야 해 쉽지 않겠지만 신군부가 국가폭력에 의해 조성한 비자금인 만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차제에 전두환을 포함한 신군부의 비자금 전체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조성 배경과 과정, 사용처 등을 낱낱이 밝혀 국가에 환수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공소시효가 7년인 범죄수익은닉죄도 개정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길 바란다.

無等鼓

길거리 ‘소울 푸드’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펼쳐졌던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15~19일)는 대표적 길거리 간식들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행사이기도 했다. 일교차가 커져 뜨끈한 길거리 간식이 생각나는 시기에 열렸던 행사라 붕어빵, 어묵, 호떡, 군밤, 계란빵, 호두과자 등 길거리 간식들을 판매하는 노점이 자연스럽게 선을 보였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길거리 음식의 대표주자인 붕어빵은 원래 팥이 들어가지만 행사장에서는 슈크림, 치즈, 피자, 아이스크림 등을 활용한 붕어빵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붕어빵과 쌍벽을 이루는 풀빵계의 라이벌 계란빵도 풍성함과 폭신함으로 관광객들 시선을 사로잡았다. 계란빵은 계란을 통째로 넣고 구운 게 특징으로 날씨가 쌀쌀한 이 맘때 먹기 좋다.

특히 계란빵은 CNN이 최근 한국어 발음 그대로 ‘gyeran-ppang’으로 소개하면서 빵에 담긴 기억에 남는 풍미, 상징적 지위 등을 종합해 ‘세계 50대 빵’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고 있다.

계란빵은 프랑스의 바게트, 이탈리아의 치아바타, 일본의 카레 빵, 멕시코의 토르티야, 미국의 비스킷, 중국 샤오빙 등 유명하고 익숙한 빵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CNN은 계란빵을 ‘계란이 통째로 들어있는 1인분 크기의 밀가루빵’이라며 ‘햄, 치즈, 파슬리를 넣으면 달콤하고 짭짤한 맛에 풍미까지 더해져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한국의 긴 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해준다’고 소개했다.

계란빵은 붕어빵과 함께 서민들의 길거리 ‘소울 푸드’다. 붕어빵은 값싼 간식의 대표주자로, 10년 전만 해도 5개에 1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몇 년 전에는 3개 2000원으로 오르더니 이제는 한 마리에 1000원을 줘야 한다. 계란빵도 1980년대 첫 선을 보일 때만 해도 개당 1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국민 간식’이었다. 이제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 1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먹기 힘들어졌다.

서민들이 길거리 소울 푸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열 만큼 경기가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